

옛 대한방직 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토지 거래 시 투기 사전 예방, 원활한 사업 추진 기대

전주시는 30일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옛 대한방직 부지를 오는 2029년 6월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이 원안 통과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의 이용·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및 우려 지역 등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토지거래계약 체결시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체 옛 대한방직 면적(23만 565㎡) 중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기반시설인 완충녹지(7873㎡)

를 제외한 공장 이전 지역인 22만2692㎡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 완충녹지의 경우 현 대한방직 부지를 둘러싼 전주시 소유의 토지로, 향후 도로로 편입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향후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될 경우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고, 불합리한 토지 거래의 투기를 사전에 예방해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옛 대한방직 부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사업이 전주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



대한방직 조감도.

(사진=전주시청 제공)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허가구역 지정은 공고일로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대한방직 부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동안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완산구청장으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득해야 한다. /김욱기 기자

5·18민중항쟁기념 전북학술제

오늘 오후 2시 우석대학교 문화관서 개최

제44주년 5·18민중항쟁기념 전북학술제가 31일 오후 2시 우석대학교 문화관 5층 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학술제는 5.27의거 신홍고등학교 시위 및 유인물배포 투쟁을 중심으로 그 의의와 역사적 의미를 전북지역 민주화운동사에 새롭게 조명하기 위함이다.

심영배 위원장(제44주년 5·18민중항쟁기념 전북행사공동위원장, 전북5월동지회 회장)의 개회사와 서순 소장(우석대학교 동아시아평화연구소 소장)의 환영사에 이어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발제1은 5·18민주화운동과 전북고등학생의 항쟁-전주신홍고등학교 5.27의거를 중심으로 정호기 우석대학교 교수, 양라운 우석대학교 동아시아평화연구소 연구원이 발표한다.

발제2는 전주시 고등학교연합 유인물 배포투쟁을 주제로 이우봉씨가 발표를 하고, 신홍고등학교 시위에 가담했던 김명희씨, 5·18민주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김상욱조사관, 김정은 경북대학교 교수, 김경수 전북일보 기자가 토론에 나선다.

김정원 교수는 전북지역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발표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5·18 민중항쟁기념 전북학술제가 이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길 바란다라고 했다.

제44주년 5·18 민중항쟁기념 전북행사위원회에는 전북민중행동(31개단체),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14개단체)등 160여개 시민사회,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민·관 50여 명 합동단속 실시

전주시는 30일 시청 청소지원과 직원과 완산·덕진구청 청소위생과 직원, 불법투기 상시 단속반, 완산시민경찰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아간 단속은 참여자들이 10개 조로 나뉘어 사전에 선정된 13개 동의 상습 무단투기가 빈번한 주택가와 이면도로의 취약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단속반은 종량제 봉투 미사용 등 배출 규정 위반 쓰레기의 내용물을 확인했으며,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배출제도에 대한 홍보도 함께 실시했다. 시는 이날 확인된 무단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강력한 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오는 7월과 8월에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일몰 후 배출제(생활폐기물을 수거전일 오후 6시부터 수거일 오전 6시까지 배출)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품목별, 요일별 주 2회 배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중점 계도 및 홍보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시는 올해 청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통해 총 394건을 적발해 약 5,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1,310건의 경미한 적발사항 등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토록 조치한 바 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가 노인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사업 수행기관장과 머리를 맞댔다.

노인일자리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전주시, 30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장 간담회

전주시가 노인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사업 수행기관장과 머리를 맞댔다.

시는 30일 노인일자리사업과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19개 기관의 장과 중간관리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참석자들은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의 추진현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노인일자리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으며, 향후 지속적인 소통을 위한 유기적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도 했다.

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해 향후 노인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기회 확대에 연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면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면서 "앞으로도 전주시와 함께 노인일자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교훈 전주시 노인복지과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행기관장과 함께 노인일자리 사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일 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기후변화 대응 생육장해 예방 시설 지원

전주시, 올해 4억1800만원 투입

전주시가 지구 온난화와 폭염, 저온, 서리피해 등 각종 기상 이변으로 인한 원예작물 생산 농가의 피해를 줄이고 농산물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중성)는 올해 총 4억1800만원을 투입해 농가의 이상기후로 인한 원예작물 생육장해 예방 및 품질향상을 위한 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소요되는 농가의 에너지 절감과 폭염·한파시 농작물 생리장해 방

생 감소를 통해 작물이 자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작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먼저 시는 여름철에는 시설 내부 온도하강을 위한 △프로그래밍시스템 △무인방제시설 △차열망과 순환팬 등의 설치를 지원하고, 겨울철에는 난방비 절감과 서리피해 예방을 위해 △전선기난방기 △다점보온커튼 △미온수관수시설 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월 희망 농가의 접수를 받아 지원 대상 농가를 결정했으며, 올 연말까지 15곳(6.9ha)에 예방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설공단, 6~8월 월드컵경기장 바닥분수 운영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이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이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전주월드컵경기장 광장 바닥분수를 운영한다.

30일 공단에 따르면 월드컵경기장은 다음 달 1일부터 8월 말까지 3개월간 만남의광장 바닥분수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달 열린 전주정원산업박람회 기간 시범운영을 통해 점검을 마치고 이번에는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는 것이다. 바닥분수는 광장 한가운데에 321.2㎡ 크기로 조성돼 있다. 분수는 낮 12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되며, 매시간 50분간 가동 후 10분간 휴식 시간을

갖는다. 바닥에서 힘차게 솟아오르는 물줄기는 시민들에게 청량감을 줄 뿐 아니라 시시각각 다양한 모양을 연출해 이색적인 볼거리도 제공한다.

특히 아이들은 시원한 물줄기로 온몸을 흔뻑 적시며 바다 분수대를 물놀이장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공단은 어린이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분수와 직접 접촉하는 만큼 소독을 철저히 하고 주 1회 고압 세척을 하는 한편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김욱기 기자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

전주매일 캠페인